

저자 (Authors)	주미경 Joo, Mi Kyoung
출처 (Source)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1(1) , 2007.2, 61-69(9 page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21(1) , 2007.2, 61-69(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색채학회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56604
APA Style	주미경 (2007). 신라 건국신화를 통해 본 신라인의 색채의식 형성 試論.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1(1), 61-6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3 10: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건국신화를 통해 본 신라인의 색채의식 형성 試論

주미경

삼육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예술디자인학부 교수

색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인식과정을 거쳐 사용되기도 하지만 색채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색채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색채는 시대마다 보편적 감성의 특징이 저변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대적 배경이 사회의 변화를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유도하였던 사실을 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대적 배경, 문화적 인식 차이로 색의 사회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라시대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 중 신라 건국 신화에 나타난 흰말과 자주 빛 알을 통하여 민족의 전통 색 감성을 알고 색 정서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시대적 여건으로 보아 당시 신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을 것이다. 특히 자연 친화적 색채 환경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색채는 당시의 색정서의 대표적이며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여 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화의 색을 통하여 언어적인 표상보다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색채를 활용한 사회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 것이다. 이는 고대 사회의 한 민족이 전통 색을 사회적 관습과 미적 표상으로 상징하였으며 선대에 색정서가 후대에 기층문화 속에 보편적 정신적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신라 건국신화에 나타난 흰말 白馬의 흰색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성이 깊은 색채로 문자나 구두로 표현될 수 없는 상서로운 정신적 의미와 품격을 대변하고 있으며 자줏빛 알 紫卵의 자색은 신성을 의인화하는 색의미로 상위 개념과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였으나 색 자체의 의미 보다 위계와 이지적 의미를 위한 미적 개념의 색이미지가 크게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건국신화에서 보여주는 색 감성은 전통 신화 색채의 사회학적 커뮤니케이션 의미의 색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건국신화, 전통 색, 백색, 자색

1. 서론

색이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필요성 부분보다 공존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선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색도 에너지를 인간에게 전한다면 먹고, 입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관관계를 갖는다.

유사 이래로 색은 인간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미쳐왔으며 추상적 개념들이 형성되어 삶 속에 스며져 있다. 지역과 인종, 개념, 관습, 기후, 문화, 경험에 따른 색에 대한 인식이 인간에게 인지되어져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이는 사회와 국가의 형성과 통치에도 일정 부분역할을 했다면 신라시대 건국신화에 나타난 색 의미와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과정을 『삼국사기』에서 보면

高墟村長 蘇伐公이 하루는 楊山 밑 蘿井 峽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보았는데,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고허촌장 소벌공이) 가서 보니 말은 간 데 없고, 다만 있는 것은 큰 알뿐이었다. 알을 깨어 본즉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곧 蘇伐公이 데려다가 길렀더니, 나이 10여 세가 되니 유달리 숙성하였다. 6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높이 받들더니, 이 때에 이르러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았다.¹⁾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박혁거세 원년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보면

3월 초 1일에 六部の 조상들이 각기 자제들을 데리고 關川岸上에 모여서 의논하였다. “우리가 위에 백성을 다스릴 군주가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일하여 제 맘대로 하니,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움을 정치 아니하겠는가.” 하고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蘿井 峽에 이상스러운 기운이 전광과 같이 땅에 비치더니 거기에 白馬 한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보니 한 자주빛 알 紫卵이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그 알을 깨어보니 모양이 단정한 아름다운 동자가 나왔다. 경이하게 여겨 그 아이를 東泉-東泉寺는 詞腦野北쪽에 있다-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일월이 청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를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였다.²⁾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혁거세왕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사서의 이야기에서 큰 줄거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이가 난다. 『삼국유사』의 묘사가 더 자세하다. 이러한 차이는 찬자가 참고한 전거 자료가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찬자가 자료를 취급하는 태도가 달라서일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³⁾ 즉 박혁거세 탄생설화의 원형은 『삼국유사』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두 기록에서 보이는 차이는 하나

2) “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時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東泉寺在詞腦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

3) 『삼국사기』의 찬자는 왕의 칭호나 유년칭원법 같이 ‘鄙野하고 非禮’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원형대로 표현해 놓고 있고, 또한 삼국의 시조 설화와 같은 것도 거의 그대로 재현시켜 놓고 있고 있다(鄭求福, 1999, 『韓國中世史學史(1)』, 집문당, 264-266쪽 참조). 예컨대 “論曰 新羅朴氏昔氏皆自卵生 金氏從天入金橫而降 或云乘金車 此尤詭怪不可信 然世俗相傳 爲之實事”(『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9年)라 하였듯, 삼국의 시조 설화와 같은 일이 不可信의 일이라고 해서 삭제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삼국사기』의 찬자는 刪削에 있어서 상당한 조심성을 보이고 있다(高柄翹, 1969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歷史敘述」,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 출판부, 49-50쪽 참조). 그렇지만 주지하듯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동명성왕 4年 “夏四月 雲霧四起 人不辨色 七日秋七月 營作城郭宮室”(권13, 고구려본기1)이라고 한 기사가 『舊三國史』에서는 “七月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 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3, 『東明王篇』)이라고 되어 있다. 즉 『삼국사기』로만 본다면 성곽과 궁실을 지은 사실이 별개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구삼국사』의 전승에서는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나오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찬자는 최소한의 기준 내에서 不可信의 일을 기록했을 뿐이며,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가하였다고 이해된다. 이로 보아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도 일부 산삭이 가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할 때 색채와 같은 세부적인 묘사는 편집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高墟村長蘇伐公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然夙成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하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지금까지 신라 건국신화에 대해서는 역사학에서 뿐만 아니라 국문학, 종교학, 민속학, 신화학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내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신화는 당시의 역사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건국신화를 통해서도 당시의 기록으로만 보기보다 사람들의 관념과 사상을 통한 감성적 문화적 사회상도 엿볼 수도 있다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 문헌을 참고로 하되 역사적 근거 유무와 설화적 논의는 사학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기고자 하며 건국신화에 표상된 색채를 연구, 논의하고자 한다

건국신화에서 나타난 흰 말과 자줏빛 말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말 그리고 말이라는 실체적인 대상에만 주목했었지만 신화에서 묘사하는 색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색채는 실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표상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건국신화의 색채를 통한 연구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사상 및 감성적 문화적 사회현상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만 아니라 신라인의 색 정서를 재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적인 색 감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목적은 흰말과 자줏빛 말이 담고 있는 색채의 이미지를 통해 신라인들의 색 정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라시대의 건국신화 기록에 사용되어진 색채, 특히 흰 말과 자줏빛 말의 흰색과 자색의 전통 색 개념과 이미지에 대한 색사용을 문헌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白馬와 紫卵: 건국신화의 색채

신라시대 건국신화에 표상된 사물인 백마와 자란의 색 감성과 색 정서가 신라인의 색채 이미지 형성에 준 영향과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색채의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문헌 고찰과 후대 유물을 통하여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白馬

신라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국가에서도 白馬는 왕자의 출현을 알려주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령 동부여 금와왕의 출생과 관련한 다음을 보면

처음 扶餘王 解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山川에 제사하여 後嗣를 구하려 했는데, 그가 탄 말이 鯢淵이란 곳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꺾이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겨 놓고 보니, 한 金色의 小兒가 있었다.⁴⁾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원년

夫婁가 늙고 아들이 없어서 하루는 山川에 제사하고 後嗣를 求하고 있었는데 뺏던 말이 鯢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對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王이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들쳐 내니 (거기에) 金色蛙形의 小兒가 있었다. 王이 기뻐하여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심이라”하고는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金蛙라 하였다.⁵⁾ 『삼국유사』 권1, 기이1 동부여

라고 되어 있듯이, 동부여 금와왕의 출생을 말이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군주의 탄생을 알려주는 말은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 여겨지고 있다.⁶⁾ 즉 성스러운 인물의 강림을 알리는 使者 즉 天馬의 관념 속에서 말이 등장하였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에 대한 신성한 관념은 신라 馬紋土器·馬形土器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며,⁷⁾ 천마총의 천마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⁸⁾

4) “先是 扶餘王解夫婁 老無子 祭山川求嗣 其所御馬至鯢淵 見大石相對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蛙一作黿 王喜曰 此乃天賚我令胤乎 乃收而養之 名曰金蛙”

5) “夫婁老無子 一日祭山川求嗣 所乘馬至鯢淵 見大石相對淚流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金色蛙形 王喜曰 此乃天賚我令胤乎 乃收而養之 名曰金蛙”

6) 혁거세의 출생에 말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박씨족을 기마술에 익숙한 북방 유이민 계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김철준, 1975, 『신라 상고세계와 그 기년』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지식산업사, 72-73쪽.

7) 장지훈, 1990, 『건국신화에 대한 일고찰-고구려·신라를 중심으로-』 『부산사학』 19, 15쪽.

그렇다면 말이 흰 색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을까?

건국신화의 흰 말을 제외하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흰 말의 사례를 보면

新羅別記에는 文武王 卽位 5年乙丑 秋8月 庚子에 王이 친히 大兵을 거느리고 熊津城에 가서假王 玳餘隆을 만나 壇을 만들고 白馬를 犧牲하여맹세할 때 먼저 天神과 山川의 靈에 제사지내고 그런 후에 삼혈하고 글을 지어 맹세하여 이르기를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肅愼의 사신이 와서 자주빛 여우 紫狐의 가죽과 흰말 白鷹·흰말 白馬을 바치니 왕이 잔치하여 보냈다. 『삼국사기』 권15 고구려 본기3 태조대왕 69년

善宗이 彌勒佛을 自稱하며, 머리에 金色 帽子를 쓰고 몸에 方袍-승복을 입었으며, 長子 靑光菩薩, 季子를 神光菩薩 이라 하였다. 외출할 때에는 항상 白馬를 타고 彩色 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하고, 重男重女로 일산과 香花를 받들게 하여 앞에서 인도하고, 또 比兵 200여명으로 梵唄를 부르면서 뒤를 따르게 하였다 『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궁예

유신은 또한 백마를 잡아 별이 떨어진 자리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하였다. 『삼국사기』 권41 열전 1 김유신

라고 기록된 얼마 되지 않는 사례이지만, 외국 사신의 현상물(1), 회생물(2·3) 그리고 왕의 위엄을 높여주는 동물(4)등으로 백마가 나타난다.

이는 각 사례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신성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신라만이 아니라 동·서양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믿음의⁹⁾ 색이다.

8) 천마도의 그림을 말이 아니라 기린으로 보는 견해(이재중, 1994, 『삼국시대 고분미술의 기린상』 『미술사학연구』203, 21~25쪽)도 있다.

9) 가령 몽골에서는 백마가 하늘을 달린다는 사상이 발견된다. 몽고인의 신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백마는 숭상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령 오보체의 오보 위나 친막 위의 그림 속에는 백마가 하늘을 달리는 그림(Ximori)이 그려져 있는데 Xi는 하늘을 mori는 말을 뜻한다고 한다. 이러한 백색은 몽골인들에게 행복을 나타내는 최고의 색이라고 한다. 장지훈, 1990, 『건국신화에 대한

특히 동북아시아 고대 국가의 흰 색 숭상의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헌 기록을 보면

“國在衣尚白” 『삼국지』 권30, 동이30 부여.

“服色尚素” 『隋書』 권81, 열전46 신라.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수서』 권81, 열전 46 신라.

라고 서술된 문헌 내용들은 단순히 염색 기술 숙련성만이 아니라 염재의 회소성, 고가성도 동북아 문화권의 ‘흰 색’ 숭상과 관련하여 ‘백마’ 숭상 현상을 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기록은 예로부터 자연의 법칙에 근거를 둔 한국의 음양오행설 사상과 한민족 생활, 풍습, 문화, 건강에 대한 보편적 사상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원리로 오색의 색동과 혼례 때 사용한 청홍사(靑紅絲), 관복의 신과 버선으로 흑(黑), 백(白)의 원리적 사상을 표출하였다.

이같이 동양의 색채 개념은 미적인 부분의 색채 자체보다 의미(image)를 부여하여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심리적, 사회학적으로 사상적인 의도로 접근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33 잡지2 색복(色服)을 보면 신라(新羅) 초기의 의복 제도는 색채를 상고할 수 없다고 기록된바 건국 신화에 나타난 白馬의 진정한 의미는 후일에 사회사에서 나타나는 白色에 대한 문화와 생활 표현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제 23대 法興王 때 처음으로 6部 사람들의 복색의 존비尊卑제도를 정하였지만, 오히려 이전의 풍속을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法興王 때의 法令에는 太太角干에서 大阿漚(5등급)까지는 紫衣요, 阿漚(6등급)에서 級漚(9등급)까지는 緋衣(붉은옷)로 모두 牙笏을 가졌다. 그리고 大奈麻(10등급) 奈麻(11등급)는 靑衣(푸른옷)요, 大舍(12등급)에서 先沮知(一云造位이니 17등급)까지는 黃衣였다는 기록에 백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백색사용이 금기시 또는 신성시 여겨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빛의 색, 신의 색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내재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인 예

일고찰-고구려·신라를 중심으로-, 『부산사학』19, 15쪽 참조.

라고 여겨진다.

중국 고서인 삼국지 위지동이전 三國志魏志東夷傳에서도 한민족의 백색선호 사상 기록이 많이 있으며 고려시대 이전에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색채가 공민왕 이후 금제되었으나 이러한 풍속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민족 간에 공통된 사상적 배경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백색에 대한 신성함과 고귀함이 여러 번의 금제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順白, 卵白, 乳白, 灰白과 같이 자연의 색인 無色의 의미로 素色으로 계승되어 왔다.

이로써 백색은 신라 건국 이전의 전통적인 백색 숭상의 태도, 독자적인 색채의식에 의한 이미지 색채로 신화적 색채로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방문화에서 보면 자수 작품은 당시 발견된 예가 없으며 삼국지의 부여전을 보면 흰 옷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이 시대에도 마와 뽕을 재배하여 양잠을 했다는 기록으로 자연주의적 흰색 사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안희준의 『한국 회화사』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채색 되어진 공예화로 천마총의 <기마인물도 騎馬人物圖>를 보면 백마를 표현하였고, 순흥 벽화의 <천마도> 경우 천마를 백색으로 표현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강경숙의 『한국도자사의 연구』에 <배동토기골호>도 회백색을 띠는 경질태토의 무문골호로 보아 생활사 전반에 민족적 색으로 색 이미지가 후습 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백색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기록된 신의 색, 태양의 색, 천자의 색으로 한색, 이지적, 혁신적인 정신적 정서뿐만 아니라 천인합인天人合人, 신성의 의인화, 자연주의적 동화로 색채개념은 색 자체의 미보다 색감성, 색정서, 색이미지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여 진다.

2-2. 紫卵

고대에 나타난 자연주의적 색채는 온대기후와 안정적 지형으로 산천에 널려 있는 천연재료인 식물에서 염료를 추출하여 풍부한 자연의 색인 저채도, 고명도의 경향과 순한색을 사용하여 자

연의 색을 활용한 풍부한 색채 감각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자색은 현재 김영선(1998)의 연구에서 보면 보라색이 자주색보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색인지 되어있으나 이것은 서구의 색 개념적 자세로 보여지며 전통의 자색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자색은 자초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그 뿌리를 염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적자, 청자, 자색 모두 청색과 적색의 혼합된 색을 이르는 뜻이다. 특히 자색은 적색이 청색보다 많은 양이 포함된 것을 개념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색은 상위의 색 개념, 고귀한 색으로 전 시대를 거쳐 변화가 거의 없으나 왕의 복식 색, 임금의 색으로 인지되어 하늘의 상서로운 기운을 상징하였다.

또한 자색은 음색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간색 중 가장 어두운 색상으로 주술적 의미의 무교 사상의 색으로 인식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금제의 역사를 가진 색 이다.

신라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자색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색에 대한 지각 심리학적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

자죽빛의 사례를 삼국유사에서 보면

八月四日에 瓠公이 밤에 月城 西里를 가다가 큰 光明이 始林 혹은 鳩林이라고도 함 속에서 나타남을 보았다. 紫色 구름이 하늘에서 땅에 뻗었는데 구름 가운데 黃金 靑이 나무 끝에 걸려 있고 그 빛이 靑에서 나오며 또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우는지라 이것을 王에게 아뢰었다. 王이 그 숲에 가서 靑을 열고 보니 그 속에 童男 하나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마치 赫居世의 古事와 같으므로, 그 말에 인하여 關智라 이름하니 關智는 곧 우리말에 小兒를 말함이다.¹⁰⁾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알지 탈해왕

10) “永平三年庚申 一云中元六年 誤矣 中元盡二年而已 八月四日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 一作鳩林 有紫雲從天垂地 雲中有黃金櫃 掛於樹枝 光自櫃出 亦有白鷄鳴於樹下 以狀關於王 鷄行其林 關櫃有童男 臥而即起 如赫居世之故事 故因其言 以關智名之 關智即鄉言小兒之稱也 抱載還關 鳥獸相隨 喜躍踴躍 王擇吉日 冊位太子 後讓於婆婆 不即王位 因金櫃而出 乃姓金氏 關智生熱漢 漢生阿都 都生首留 留生都部 都生俱道 一作仇刀 道生末都 鄒即王位 新羅金氏自關智始”

또한 古記에는 옛날에 한 富者가 光州北村에 살았는데 一女가 있어 모양이 端正하였다. 그의 父親에게 이르되 매양 紫色衣服을 입은 男子가 寢室에 와서 交婚한다 하였다. 그의 父親이 “네가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찔러두라”고 하였다. (그 딸이) 그리하였던바 날이 밝아 실을 찾아보니 바늘이 북쪽 담 아래의 큰 지렁이 허리에 찔려 있었다. 그 후 임신이 되어 한 사내아이를 낳으니 나이 15세에 자칭하여 甄萱이라고 하였다.¹¹⁾ 『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건원.

九干 등이 그 딸과 같이 모두 기뻐서 歌舞하다가 얼마 아니하여 쳐다보니 紫色 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는지라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폭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해와 같이 둥근 6개의 황금알이 있었다.¹²⁾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라고 기록되었다.

위의 기록은 紫色이 군주의 출생을 알려주는 상서로운 색의 기운으로 묘사하였으며 고대 중국의 자색 또한 제왕과 신선의 빛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의미(紫氣東來)하였던 기록으로 미루어 고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색이미지와 심리적 작용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지 된다.

신라의 건국신화에도 자색이라는 명칭의 의미에 푸른빛이 내포된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색채는 신비로움을 주는 색이미지를 후대에 와서는 紫赤으로 붉은 기미가 많은 자색을 사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세종신록에 보면 왕의 용포와 왕비의 衣에만 쓰여 지고 세자조차도 쓰지 못했던 색채로 신라 건국신화의 색인 자색의 의미만이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신라의 기록을 보면 진골계급 계층은 자색의 사용이 자유로운 편으로 인지되나 진골 계층에도 자색을 많은 부분 금한 것으로 보아 이 시대의 생활 색채를 가늠 해 볼 수 있는 색채이다.

11) “又古記云 昔一富人 居光州北村 有一女子 姿容端正 謂父曰 每有一紫衣男到寢交婚 父謂曰 汝以長絲貫針刺其衣 從之至明 尋絲於北牆下 針刺於大蚯蚓之腰 後因姙生一男 年十五 自稱甄萱”

12) “九干等如其言 咸忻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羅自天垂而着地 尋羅之下 乃見紅輻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신라 초기 색 관련 기록은 미진하였으나 자색에 대한 색채의식의 형성이 신라 중고기 무렵 신라 골품제 사회의 色服에 관련한 기록을 보면 체계적인 색채 구성에 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

기록에 보면 紫色은 진골 귀족관료의 관복으로 사용되었던 색이었으나 『삼국사기』 권33 잡자2 색복에는 興德王 卽位 9년에 ‘사람은 上下가 있고 地位는 尊卑가 있어, 名稱과 法式이 같지 아니하고 衣服도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골계급 중에도 자색 가죽을 금하는가 하면 여인들의 의복에 사용했던 9색에 紫黃색을 금하였으며 6두품에도 紫色 가죽을 금하고 6頭品여인들에게는 紫黃, 紫紫粉 金屑紅을 금한 기록으로 보아 이하 계층은 색의 자유로운 사용자체가 제재 되어온 것으로 보여 진다.

후대의 의복 제도는 상고 할 수 없어 중국의 역대 사서 기록 중 『北史』에 보면 ‘高(句)麗 사람 중 귀한 자는 그 관을 蘇骨이라 하는데 흔히 紫色 羅紗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 한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新唐書』의 기록으로는 고구려왕은 오색의 무늬 옷을 입었고 흰 羅紗로 관을 만들고 가죽 띠는 금구로 하였으며 대신은 흰 가죽 띠에 누른 가죽신을 신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오색과 황색, 흰색, 자색은 후대에 고려까지 그 전통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문헌을 보면

8년 정중부는 致仕하였는데 그 집 종이 禁服인 紫色 羅衫을 입고 있었으므로 臺吏가 소유(하인)를 시켜 그것을 벗기게 하였더니 그 종이 소유를 구타하고 달아났다. 대리는 대단히 분하게 여겨 길 가는 행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종을 체포하게 하였다.¹³⁾ 『고려사』 권128, 반역2 정중부

라고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 체계적 색채의식이 형성된 시점은 법흥왕 때 울령 반포 및 백관

13) “八年 仲夫致仕 家奴嘗犯禁服紫羅衫 臺吏令所由脫之 奴所由而走 吏憤甚 囑 路人捕之”

공복 시행된 시점이 대체로 신라의 관제 정비를 의미한다고 이해되는데, 백관공복과 아울러 ‘주자지서’(색채의 순서)를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 권4, 법흥왕 7년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라고 인지 할 수 있으며 김춘추가 당의 장안에서 태종에게 당의 의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을 당시, “신라의 국초에 의복을 제정하였지만 색은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라의 사신이 수나라에 조공하였을 때, 수의 民部尙書 李子雄이 그 冠制에 대해 질문했다는 기사가 나온다.¹⁴⁾ 이로 보아, 6세기 말-7세기 초에도 아직 신라사회에 완전한 중국식 복식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신라 중고기에는 전통의 색상들이 나름으로 수용되어 왔으나 중기 이후에는 현종황제의 허락으로 당의 양식에 給與한 것으로 색도 당의 색채가 우리나라 전통 색과 점진적으로 혼용되어 활용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신라시대 건국신화에 나타난 흰말의 흰색과 자주빛 알 자주색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과 색 정서를 살펴보았다.

신라시대의 색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자연 환경에 따른 시대적 이미지로 접근되어지는데 이는 전통색이 단편적인 색이미지 보다는 복합적이며 다양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시각적 의미만이 아닌 색 경험의 차이가 색 정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첫째, 건국신화의 백마에 나타난 백색은 하늘의 색으로 신성성을 갖는다. 이는 상서로운 색으로 고결함, 권위, 위엄, 태양과 같이 정신적 요소로 이지적 이미지가 색 정서에 나타났다.

특히 백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국가적 상대성 원리 측면에 준한 색으로 권위를 높여 주는 색으로 이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때로는 품격을

대변하기도 하여 색채가 문자나 구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둘째, 자줏빛 알의 자색은 주술적인 의미와 상위적 개념의 색채였으나 이는 재료의 회귀성과 신분의 변별력을 위해 금제의 역사를 지닐 만큼 상위개념 색인지를 위한 기록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주 빛 알의 자색은 푸른빛이 돈다는 기록을 보아 신성성과 상서로운 정서만 아니라 이지적 이미지를 강하게 인지시키고자 한 색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전통 색채로 오래전부터 자색은 타색에 비하여 후대에 우리 민족에게 선호도가 높은 색으로 상위 개념의 색인지가 잔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색은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적용성이 풍부하며 심리적 생리적 영향이 주어졌음을 볼 때 건국신화에서 사용된 색채는 시대적인 삶과 정치, 문화와 관련한 심리적 작용으로 정신적 가치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색채가 인간의 내,외적 의식과 행동에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색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색 관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주변국들에 비해 간색이나 혼합색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염색재료에 기인한다기보다 우리 민족의 색채 정서의 차이로 인식되어진다.

특히 신라시대 건국신화의 백색과 자색은 형이상학적 개념이 지배적이며 이 두 색에 대해 연구되는 형이하학적 개념은 신라시대 문헌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후대에 색 사용 변화에 따른 색 정서가 습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헌을 통해 연구한 신라 시대의 건국신화에 나타난 백색과 자색은 신성성과 권위의 상징적 색 정서를 내포하는 색으로 기층문화의 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전통 색에 대한 백색과 자색의 보편적 개념에 대한 색정서가 신라시대 건국신화에 나타난 흰색과 자색의 동일한 개념의 색채 미의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대적 색인지를 재인식하는 연구였다.

본 연구는 색에 대한 사적 고찰 자료의 제한성을 갖고 있었으며 건국신화와 관련된 소수의 잔존 유물과 기록 문헌에 국한되었으나 우리민족

14) 『수서』 권70 열전 이자웅

신화에 나타난 색채 의식을 통하여 색의 전통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되었으며, 고유 민족의 색 정서를 통한 색의 사회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조명 해보는 연구가 되었다.

따라서 민족 고유색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색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나아트 편집부(1999). 알고 나면 한국 미술 박사. 도서출판 가나.
- 강경숙(2002).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 김원룡(1996).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 김원룡(2002). 한국미술 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예경.
- 비교민속학회(2002). 민속과 예술. 민속원.
- 안휘준(2003). 한국의 미술과 문화. 시공사.
- 안휘준(2003).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 유준상(1944). 한국미술 빛과 색. 호암미술관.
- 유희경, 김문자(1999). 한국복식 문화사. 교문사
- 최병식(1998). 미술의 이해.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상수(1987).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 허동화(2002). 우리규방문화. 현암사.
- FABER BIRREN. 김수석역(). 색채 그 내력(來歷)과 도상.
- Faber Birren. 김진한역(2003). 색채의 영향. 시공사.
- Morton Walker. 김은경역(1996). 파워오브컬러. 교보문고.
- 강희주(2002). 우단청에 있어서 음양오행설에 의한 색채표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고석천(1997). 한국민속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제8권1호.
- 김선희외 3(2001). 한국어 색이름의 먼셀 색채 공간연구(1).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제15권1호.
- 김영인외5 (2005). 한중일 삼국에서 적색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연구. 한국색채학회. 제19권1호.
- 김은경, 김영인(2006). 한국인의 흰색상징. 한국색채학회논문집.제20권4호.
- 박돈서(1996) 색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7권10호.
- 박명원(2001). 한국인의 색채의식연구.동양예술4호.
- 박영은(2005) 안트레이 벨리의 <빠쨌르 부르그>와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적 색채 원근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수(2006). 색이름 사용에서 보이는 언어간 색채 표상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제20권4호.
- 배선주(2001).자색계의색채학적 고찰. 한국색채교육학회지. 10호

Web site

- 천년의 향기, 한국의 색 프로젝트
<http://www.chonhyang.com/html>
- 천연염색
<http://myhome.netsgo.com/dyes/default.htm>
- 오픈백과, 한국의 색

An Essay for the Formation of Silla People's Color Consciousness in view of Foundation Myth of Silla

Joo, Mi Kyou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t Design ,Sahmyook University

The color has been used through various processes of awareness according to the cultural areas, but the sociological color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color as well. We can see that the color which was formed in this way includes each period's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nses in the basis. It can be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he backgrounds of each time led social changes in political, cultural and historical wa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meaning of sociological communication of color as differences of era backgrounds and cultural consciousness. In order to understand diverse human feelings and emotions for color, I chose 'white horse' and 'purple egg' which stand for the foundation myth and represent the phases of Silla times, simultaneously.

The foundation myth of Silla is assumed to have captured sympathy with all Silla people to see the conditions of the period. Especially, I consider that colors which appear in myth with nature-friendly color circumstances highly represent and symbolize the color emotion of that time. Fundamentally, it is an instance of activating sociological communication by using color for myth in the way of maximizing image effects rather than linguistic symbols. It means that one ancient people had symbolized their social custom and aesthetic sense on traditional colors and finally it remained in the basic culture as a spiritual meaning.

In that way, the color of white from 'white horse' can be understood as the coldness for the spirit of foundation, the respect and the mental sense, representing the light by applying meanings of color which are related to the political ideology. The color of purple from 'purple egg' more overweighs on the aesthetical meaning than the meaning of the color itself as an idea of uncommon and marvelous one by personifying holiness in the universal and heavenly point of view.

The psychological approach of traditional mythical color in terms of divine color and color consciousness from the foundation myth indicates modern emotion of color in the meaning of common communication.

Key words: foundation myth, traditional color, the color of white, the color of purple